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1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한다.

1.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말씀 하신 내용을 살펴 보자.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된 인식은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우리가 잘 알 듯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의 3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은혜로 구원 받은 백성이고 영토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 하시는 영역이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술 교육 종교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한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 했으나 아직은 너무 약하다. 그러나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히 순종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

그 새 하늘과 새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이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계시록 21:3-4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날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나라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넘칠 것이다(고후4:16)”

여기서 우리가 주의 해야 할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갱신 될** 것이다. 여전히 땅이고 여전히 하늘이지만 죄나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세상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연속성과 불연속성(continuity and discontinuity)라고 말한다. 여전히 지금 있는 하늘이고 지금 있는 땅이 계속 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고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죄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의 세력이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골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 나라의 시민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근본 도리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나라이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맛 보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도제목이다. 이 기도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이 임하옵시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도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저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니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한다.

2.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성을 인하여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나라로 우리가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거룩한 나라이지만 회개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믿을때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

둘째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왔지만 계속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이미 구원을 받기 위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 없이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 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항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된다.

다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죄를 물리칠 실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데후 3: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중의 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다. 또한 예수님은 악한자, 곧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예수님을 끊임 없이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한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나라가 들어 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요즈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대유행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Spiritual Networking Service(영적인 관계망의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Spiritual Networking Service(영적인 관계망의 서비스)를 위한 기도로 온전히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실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할 기본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들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술 교육 종교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도는 각자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여섯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전도가 필연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각자의 기도제목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는 것 중에도 각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인내하며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기도제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풍성해 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무한히 공급해 주신다. 성령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성령을 사고자 하는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는 심한 책망을 했다(행 8:19-20).

하나님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펴 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